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건축사는 '22.02.03. 개정·공포된 건축사법에 따라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 회원가입 대상

-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대표건축사  
(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 모두 가입)  
\* 재직건축사(소속건축사)는 협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본인 희망시 가입 가능)

### ■ 회원가입 기한

-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건축사는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

### ■ 회원가입 신고

- 시도건축사회 가입 신고 (본 협회에 자동가입 처리)  
\* 지역건축사회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 결정

### ■ 회원가입 절차

- 건축사 자격 등록 ⇨ 건축사사무소 개설 ⇨ 대한건축사협회 입회 ⇨ 정회원 활동

### ■ 회원가입 제출서류

- ① 정회원 신고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 ④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
- ⑤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 서식안내  
- ①, ② : 협회 누리집(kir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누리집 상단 협회소개 → 회원가입안내)  
- ④ :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

### ■ 정회원 회비

구분	납부 시기 (기한)	회비 기준금액
입 회 비	협회 회원 가입시	200만 원
정회원(월정)회비	해당월분 매월 말일까지	25,000원/월

### ■ 회원가입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본협회	02-3415-6800	대 전	042-485-2813~5	충 남	041-338-4088
서 울	02-581-5715	울 산	052-274-8836	전 북	063-251-6040
부 산	051-633-6677	세 종	044-862-6636	전 남	061-285-7563~4
대 구	053-753-8980	경 기	031-247-6129	경 북	054-859-8170
인 천	032-432-3381~4	강 원	033-254-2442	경 남	055-246-4530
광 주	062-521-0025	충 북	043-223-3084	제 주	064-752-3248

\* 회원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화, 그리고 질문

### Conversation and questions

글. 박정연  
Bahk, Jung Yeon  
본지 편집국장

(대화를 각색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설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설계안 잘 뽑아주세요.”

“설계사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 건축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잘 몰랐네요.”

“그리고 설계를 뽑는다는 표현도 좀...”

“하하 까다로우시네. 알겠습니다. 설계사... 아니 건축사님.”

#2

“○○구 ○○로 ○○필지에 가설계 좀 해줘요.”

“저희는 가설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규 및 규모 검토는 소정의 비용을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데는 다 해준다고 해서 세 군데 정도 비교해보려 했는데, 여기는 잘나가나 보네. 그럼 이거는 저기 사무실에서 가설계 떠 준 건데 이대로 그려서 허가처리 해주시면 얼마예요?”

#3

“여기는 평당 설계비 얼마예요?”

“필지 주소 알려주시고 용도, 규모 등에 대해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하신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평당 설계비를 알아야 상담을 할지 말지 정할 것 아니예요?”

“그래도 기본정보를 알아야 업무 범위가 정해지고...”

“평당 설계비도 안정해놓고 사업하세요? 짜장면이 얼마인지 알아야 주문을 하지!”

## Architect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

“심의 받았는데 원래 이런 의견들이 나오나요?”

“위원들을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렸어야 이런 의견들이 안 달리지.”

“그래도 이건 심의 목적과 관계없는 내용인걸요?”

“그래서 찾아뵙어야 한다는 거야. 의견 작성한 위원은 ○○○일 것 같은데 내가 좀 알아봐 줄게.”

“만나고 설명 드리면 의견을 달지 않는데, 안 만나서 심의 목적과 관계없는 의견을 달았다는 거예요?”

#5

“어휴, 이번에도 사용승인 받는데 업무대행 건축사님이 까다로웠어요.”

“그렇게 특검자한테 봉투 챙겨줘야 된단니까. 몰랐어?” “그런 얘기 듣기는 했지만... 적법하게 허가받고, 도면대로 시공된 건데 왜요? 저는 애초에 사용승인이 시공자 업무인데 건축사가 대신 검사 받는 것도 불만인데요.”  
“너무 세상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맞춰서 살아봐.”

#6

“설계공모 발표 났어?”

“또 떨어졌어요. 이번 계획안은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정말 기대했는데 세 번 연속 광탈(수상작에 들지 못하고 빛의 속도로 떨어졌다.)이네요.”

“아는 심사위원 있는지 찾아보고 시작해야지 디자인

만 열심히 해서 되겠어?”

“그래도 당선안보다 저희 계획안이 장점이 많은데...”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세상이 잘못되게 만든 것일까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함께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